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호 【루계 제25542호】 주제 106 (2017)년 2월 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파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어비이정에 떠받들리워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세상이 보관함이 또 하나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교육현결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뿐히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학원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해 7월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



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 건설도 와닥닥 달려붙어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똘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연건축면적이 7,870여㎡이고 교사, 기숙사, 야외체육장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초등학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멋쟁이 궁전, 번 후날에도 손색없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는 사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과 울라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천부모가 되시어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질다그 하시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